

11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종부세 사망선고, 4년만에 무용지물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림. 환급규모 5,000억원 환급대란 우려.
채안펀드 조성	금융위는 10조원을 조성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함. 산업은행 2조원을 비롯, 연기금 보험 은행권의 자금조달. 채안기금이 오히려 채권시장에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임.
‘롤러코스터’ 뉴욕, 막판 폭등	다우 지수는 장중 지난 10월10일 이후 처음으로 8,000선이 무너지면서 3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쳤으나 이후 90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하며 등락폭은 911포인트에 달했음. 유가 반등으로 인한 에너지주의 저가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지수 상승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됨.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7년 최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깊숙히 확산되면서 실업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미국 무역적자 축소..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미국의 무역적자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과 수입은 모두 사상 최대폭으로 급감했음. 상무부는 9월 무역적자가 565억달러로 전월의 591억달러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568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임.
라이보, 24일만에 반등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는 24일만에 반등했음. 영국은행연합회(BBA)에 따르면 3개월짜리 라이보는 2.15%로 전일대비 2bp 상승했음.
유가..재고 불변+ OPEC 감산 전망 [WTI: \$58.24 (+\$2.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제자리 걸음을 걸은데다 이틀 연속 폭락에 따른 과매도 분석,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 감산 전망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상승하였음.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와 같은 수준인 3억1,190만 배럴을 기록하였고, 휘발유 재고는 200만배럴 증가하였음.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도 60만배럴 늘었음.
獨, 공식 경기침체 진입..3Q 성장률 ‘-0.5%’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기록.
G-20 첫 정상회의, 금융위기 타개책 모색	15일 워싱턴서 두 차례 금융정상회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과 공조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제목	주요 내용
"내년 美·日·유로존 일제히 역성장"-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미국과 유로존, 일본 경제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마켓워치에 따르면 OECD는 13일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로존과 일본 경제도 각각 0.5%, 0.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
STX조선, 초대형 유조선 2척 수주	유럽선주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2척을 3억 1,130만달러에 수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뤄진 대형 선박 수주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하이닉스 1조 증자설 부인	하이닉스는 1조원 규모의 증자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중장기 자금조달 방안을 위한 자구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
국채선물 원익이상 폭락(-109틱, 107.10)	외국인 매도와 맞물려 채안펀드조성이 불안요소로 작용.
한국은행 통화스왑 통한 유동성공급	스왑경쟁입찰은 100억달러까지, 장기물 통화스왑시장참여로 확대.
한국은행 160억달러 수출입금융 공급	한국은행과 정부가 160억달러를 수출입금융에 공급함으로써 은행들의 외화자금 부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